

칼럼

표준화를 통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김 광 우

대한건축학회 회장(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우리는 표준과 기준, 지침에 의해, 매뉴얼에 따라 매사를 수행하는 것에 익숙지 않다. 그러나 표준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는 것에는 여러 장점이 있다. 먼저 체험한 사람들의 경험을 살릴 수 있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불필요한 일들을 줄이고,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경험은 자산이므로 나의 소중한 경험을 나누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선배의 경험을 내가 미리 알았다면, 시간도 절약하고, 처음 하는 일도 자신 있게 해낼 수 있었을 것이다.

회사가 경쟁력이 있으려면 모든 회사원들의 경험을 지침이나 매뉴얼로 만들어 공유하고, 새로운 경험과 함께 이를 수정, 보완해 나감으로써 모든 회사원들의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며, 가능한 부분은 회사의 기준으로 발전시켜, 회사의 수행 업무나 생산 제품의 질을 보장함으로써 고객의 회사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근래에 어려움이 큰 건설산업은 예전과 같은 호황을 기대하기 어려워, 해외로의 돌파구를 더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신흥국들의 부상으로 건설산업도 타 산업 분야에서와 같이 고전이 예상되므로,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외국의 모 건설회사 인력

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건설회사들의 인력 모두를 합친 수보다 더 많다고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경쟁 대상은 더 이상 국내 회사들이 아니며, 우리 건설업계 모두가 힘을 합쳐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승산이 없어 보인다. 건설인 모두의 경험과 지식을 같이 모아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나라 건설회사의 수행 업무나 제품의 질적 수준을 높게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 나가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표준, 기준, 지침, 매뉴얼의 작업은 세계 모든 국가에서 민간의 주도 하에 다양한 형태로 개발된 뒤 지속적인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지며,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는 우수하게 제정된 표준을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채택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문성이 있는 기술 집단에 의한 끊임없는 표준 개발의 토양이 마련되고, 지속적인 선순환의 고리가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대학에서의 연구도 표준을 개발하고 보완하는 연구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교육도 표준을 참고하고 이에 따라 건설 업무를 수행하고 평가함을 학습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대학 졸업생을 기업에서 재교육하는 노력도 줄어들 것이며, 해외에서의 건설산업 경쟁력 향상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CERIK